



## “진료협력체계 강화하여 암환자 진료지연 방지할 것”

- 국무총리, 국립암센터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점검
- 암 환자를 위해 암 환자 콜센터 및 암진료협력병원 운영 적극 지원할 것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3일(금), 국립암센터를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, 의료진과 환자를 만나 격려하였습니다.

\* (참석) 국립암센터 원장(서홍관), 부속병원장(엄현석), 혁신전략실장(이종열), 진료부원장(엄우식), 간호본부장(김미영), 암지식정보센터장(전재관)

○ 이번 행보는 암 환자의 치료와 수술 진료 지연 사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.

□ 정부는 암 환자분들이 제때,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
○ 상급병원이 진료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암 환자분들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68개소의 암 진료협력 종합병원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며,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.

○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통해 전원지원금과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○ 특히, 국립암센터는 1877-8126 번호로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암 수술, 항암치료, 방사선치료 등 병원별 진료현황을 파악하고, 진료 차질을 겪고 계시는 환자분들께 진료 가능한 병원을 신속히 안내하고 있습니다.

□ 한덕수 총리는 이 자리에서 “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은 이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암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치료와 수술지연으로 인해 더 큰 불안과 고통을 드리고 있다”며,

○ “의대교수님들께서는 환자분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부디 환자

결을 지켜주시고 전공의들도 이제는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”고 강조했습니다.

- 또한, “국립암센터는 의료공백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많은 암 환자와 가족분들을 위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일선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”고 당부하였습니다.

□ 한편, 국립암센터는 병동에 ‘국립암센터병원학교 밝은교실’\*을 설치하여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\* 풍산초등학교(경기도교육청) 관리운영

- 한총리는 밝은교실도 방문하여 수업을 듣는 학생(만 9세, 여아)을 직접 만나 “힘든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열심히 수업을 듣는 모습이 대견하다”며 격려의 말을 전하고, 어린이날을 맞아 선물도 전달했습니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국무조정실<br>사회복지정책관실 | 책임자 | 과 장 | 성현국 (044-200-2293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고연주 (044-200-2295) |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